

광주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예산 삭감

시민 참여형 조사 용역비 3억8000만원 중 68% 깎아 일부 시의원 "공론화 방식 결정 안됐는데 예산 반영 납득 안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정하게 될 공론 방식을 결정하는 용역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68%나 삭감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공론화 논란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예산 심의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제출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비 3억80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실시를 위한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시민여론조사·시민참여단 모집·속의과정 진행·백서발간 등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

이지 않았다. 이정환(광산5) 의원은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산 규모를 결정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나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9~30일 예정위와 31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조석호(북구4) 의

원은 "공론화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 사업지역에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론화에만 매몰되지 않고 원안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화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즉각 시의회를 향의 향의 방문해 자리를 비운 조 의원의 의자 위에 '토론을 요구합니다'는 내용의 종이 팻말을 남겨 놓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하수도 침수예방사업 자격 요건 제한 등 전남도, 완도군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37건에 공무원 38명 조치

완도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37건을 적발하고 38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 10억3200만원의 회수 및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군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관용차량 관리담당인 완도군 A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 차량매각에 따른 입찰보증금과 매각대금용도의 세외수입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196만4000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형선박 저당권설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당권 등록을 한 후 수입증지를 누락하거나 적은 금액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총 53건, 98만9000원을 세입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1월 안도종합운동장 본부석 막구조물 구매설치(4억7200만원)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를 요구했는데도 모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설계단가 m당 43만5000원보다 4만3000원

이 비싼 제품으로 계약해 4540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해 8월 완도를 하수도 침수예방사업의 차수용 가시설(추정금액 50억원) 특허공법 선정때 '철강제품 가시설 공법'으로만 자격요건을 제한해 2개 업체만 응찰케하고 다른 공법을 보유한 40개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완도군에 이들 4명의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테마화단 조성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입찰 등 공사계약 부적정,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설치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등 9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해조류센터 광장 주민센터 분수대 구매설치 사업은 부적정으로 적발됐지만, 해조류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일부 과실에 비해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면책하고 개선요구를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 대통령 태풍 '솔릭' 상황 점검 문제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열린 제19호 태풍 '솔릭'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中 확산...전남 양돈농 비상

치사율 100%...심양·허난성서 잇단 발생 道·농림부, 국내 유입 방지 비상행동수칙 발령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으로 확산하면서 전남도와 양돈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로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가 지켜야 할 내용

을 담아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흡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

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총 40개국으로, 그동안 아프리카(28개국)와 유럽(21개국)에서 발생했는데 이번에 중국 심양과 허난성에서 잇달아 발생, 아시아로 확산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윤곽

5·18사적지 훼손 최소화 등 광주시, 사업 콘텐츠 확정

광주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에 건립키로 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는 23일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정의와 자유의 중심지, 세계 인권 교류의 장으로 조성'을 캐츠프레이즈로 한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다. 문제인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공약

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교도소 부지 내 기존 시설 원형 보존, 1980년 이후 중·개축된 건물 리모델링, 철거 시설물 등을 결정하고 사업 콘텐츠 기본구상(안)도 마련했다. 확정된 사업 콘텐츠는 ▲5·18사적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역사체험 배움공간으로 조성 ▲세계 인권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교류와 교육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도심 녹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 등 3개 주제로 구성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의회 '지방의회 의원 연수' 참여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서) 의원들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주관하는 '2018년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참여 의원들은 지방의회 역할,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의정활동 성공 전략, 사례 분석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학습했다. 공병철 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 강사로는 김대현 전국회 사무차장, 진정구 전 국회의원차장, 박기영 전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초빙돼 강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